

#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의 희망을

2016. 3호 [www.womenfund.or.kr](http://www.womenfund.or.kr)

## 기획

100인 기부릴레이 2016 우리는 함께가는 친구입니다

## 여성단체와 함께 뛴다

통번역으로 언어장벽 허락, 이주민 전문가로 우뚝

## 100인 기부릴레이 2016 이끔이와 주자들



# 기부릴레이,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변화의 에너지

성차별과 여성에 대한 편파를 개선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은 눈과 마음을 활짝 열지 않고는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 되어 버린 뒷인지. 여성들 응원하는 기부릴레이가 이루어지는 매년 봄 이끔이들의 전화와 이메일은 정말 분주하다. 그렇게 100인 기부릴레이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정말 값진 결실이다. 뿐만 아니라 수천 명 기부자들의 성평등 사회에 대한 소망은 여성단체의 유쾌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여성 시민들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체험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더더욱 소중하다.

낡았지만 완강하게 우리 사회 깊숙이 잠식되어 있는 성차별을 이겨내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매년 <성평등사회 조성사업>을 함께 하는 파트너 단체들의 성찰과 전망은 더욱 깊어지고 있고, 활동 범위는 더 넓어지고 있다. 올해 재단과 함께하는 파트너 단체들은 한국사회가 주목해야 할 주요 의제들과 관련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다. 의식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은밀하게 확산된 여성혐오와 외모에 대한 애곡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 삶터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성평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새로운 지역공동체와 대안적 삶의 방식을 만드는 것, 사회적 소수자의 '타자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업들이다.

교육프로그램과 소모임, 글쓰기, 모니터링, 포럼과 말하기 대회, 영상 제작과 전시에 이르는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주의를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부활시키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재단에서 추진되는 사업 전후 워크숍

과 평가회의 등을 통해 파트너 단체 활동가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교류하면서 네트워크 기반을 탄탄히 마련한다.

활동 잠재력이 기대되는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은 여성 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올해는 농촌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기획자달', 양육미혼모 당사자 단체인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와 한부모 여성들을 위한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100인 기부릴레이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변화를 끌어내는 소중한 씨앗이 되고 있다. 성평등에의 혼신적 활동을 하고 있는 파트너 단체에게는 무한한 지지와 사회적 인정을, 특권과 차별이 일상화되고 폭력이 위험수위에 달한 우리 사회에는 성찰의 기회와 평등한 삶에 대한 감수성을 정착시키는 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W**

최유진

한국여성재단 배분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100인 기부릴레이 2016

## 우리는 함께 가는 친구입니다





## 4월 한 달 나눔 다이어리

### 100인 기부릴레이 2016 출발 ! 이끔이 발대식



100인 기부릴레이의 출발을 알리는 이끔이 발대식이 3월25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한국여성재단 이혜경 이사장은 100인 기부릴레이에 참여한 기부자, 그동안 지원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보고하며 올해 참여하는 이끔이들의 완주를 기원했다. 14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끔이로 참여한 조홍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처음 참여했을 때 딸아이가 고 3이었는데 이제는 엄마가 됐다. 그동안 주변

지인을 중심으로 이끔이 활동을 했다면 올해는 기부자를 보다 폭넓게 확대하고 싶다. 동료교수들에게도 기부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보겠다”고 포부를 밝혀 청중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올해 한국여성재단에 후원을 약속한 교보생명, 삼성생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유한킴벌리, 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ECMD, JP Morgan, 여성신문과의 약정식도 진행됐다.



### 〈우리는 함께 가는 친구입니다〉 캘리그라퍼 강병인님의 재능나눔

올해 이끔이들에게 전달된 이끔이 위촉장에는 힘찬 서체로 〈우리는 함께 가는 친구입니다〉가 써있다. 이 작품은 캘리그라퍼 강병인님이 100인 기부릴레이 나눔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재능나눔으로 진행됐다. 평소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강병인님은 드라마 〈미생〉 〈정도전〉 등의 타이틀로도 잘 알려져 있다.



# 내겐 정말 특별했던 100인 기부릴레이



## 음악에서 시작한 인연 기부릴레이로 계속 이상은팬모임의 임경훈 대표주자

이상은팬모임으로 참여한 2016년 100인 기부릴레이도 무사히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주자였는데 어느 해부터는 팬모임을 대표하는 주자가 되었네요. 이상은님의 노래가 좋아 모인 팬모임이 주로 온라인에서 활동하다보니 공연장에서 잠깐 인사를 나누거나 혹은 만난 적 없는 회원분도 많지만 해마다 100인 기부릴레이를 시작하면 회원분들의 따뜻함에 늘 감동과 고마움을 느낍니다. 딸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해마다 잊지 않고 기부에 참여해주시는 회원분들의 명단을 보면 이상은님의 음악에서 시작된 인연이 음악에 국한되지 않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움직임에도 함께 하게 되어 뿌듯합니다. 모두가 모이는 자리 한번 마련하지 못해 주자분들께 미안하기도 합니다. 음악이나 예술활동에 멈추지 않고 뜻 깊은 행사에 팬모임 이름으로 참여하게 해주신 이상은님 고맙습니다.



## 페미니즘에 동참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 이경래이끔이(문래청소년수련관 팀장)의 아주 특별한 주자 전주혜님

한국여성재단의 귀한 나눔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단순히 사유하는 페미니즘이 아니라 행동하고 앞으로 나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페미니즘에 동참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모두 파이팅!



## 얼굴도 모르는 나의 순수한 첫 기부자에게 뭉클 고양시도서관센터 이선화 대표주자

“커피 살게! 기부 좀 해줘”호기심에 이끔이를 수락했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끔이가 되어 고생을 사서 하는거’ 후회도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동료가 술 약속이 있는데 기부금 신청서를 한 장 달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변할까봐 얼른 신청서를 건네며 기부의 취지를 설명했더니 더 짧게 말해달라고 하길래 나도 모르게 “딸들에게 희망을! 세상 모든 여자들에게 용기를!”라고 외쳤습니다. 다음날 술이 덜 깐 상태로 건네준 기부금 신청서와 현금 만원은 나를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동료의 친구가 나의 순수한 첫 기부자이자 내겐 너무 특별한 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해 본 이끔이가 부담스러웠지만 한 달 동안 사람들과 더 즐겁게 눈 맞추고 대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 이끔이중독 고선주이끔이(건강한가정을생각하는시민의모임 공동대표)

매년 봄이면 일 년 동안 사람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 성찰하는 시간이 돌아옵니다. 바로 100인 기부릴레이. 올해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싶은데… 이제 몇 해가 지나면서는 으레 이맘때면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는 사람도 생깁니다. 30명의 목표가 아득하게 느껴지는 첫날부터 고비는 열 명에서 열다섯 명의 수준에서 나타납니다. 열다섯이 넘으면 마음이 좀 느긋해지고 이야기를 꺼냈을 때 승낙했던 사람들이 뒤늦게 합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스물, 서른 명에 육박합니다. 순전히 나의 사심으로 시작해서 어느새 내게 가족과 형제가 있음을, 연구실 선후배들과 그간 나와 함께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존재에 대해 더할 나위 없는 감사를 느끼게 합니다. 이것도 중독이지 않을까 싶네요.



### 100인 기부릴레이와 성평등에 대한 이해 김경아이끔이(전북대학교 교수)

우리 학교 공대생들과 인문대생들이 함께 듣는 ‘행정학의 이해’ 강의때 100인 기부릴레이를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성정책, 그리고 평등과 형평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특히 성평등이 행정학적으로 어떻게 접근되는지, 성인지 예산과 성인지정책 등이 왜 필요한지 등을 나누며 성평등을 위해하는데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시간이었습니다.



### 든든한 나의 후원자, 가족들의 릴레이 김영순이끔이

저의 릴레이 기부자는 네 명입니다. 숫자는 적지만 의미는 큅니다. 처음으로 가족들이 참여하기 때문이에요. 100인 기부릴레이를 어떻게 이어갈까 고민하다가 대구지역의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가족이 한번 참여시키고자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어버이날 가족모임에서 저의 여성운동의 든든한 후원자인 남편 한용봉님을 포함하여 가족들이 선뜻 기부금을 내어주었답니다.



### 나눔은 습관, 아름다운 삶의 일부 임미령이끔이(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는 생태유아교육과 친환경급식을 실천하여 아이를 살리고 농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자 노력하는 생활협동조합법인입니다. 기부릴레이는 전 민우회 생협 대표 김연순 회장님과의 인연으로 2015년부터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사무국을 중심으로 참여했지만 올해는 이사회와 일부 어린이집의 원장님 그리고 교사들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정성스럽게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생태공동체가 ‘나눔’과 ‘협동’의 가치를 교육의 중심에 두고 실천하는 곳인지라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기부가 우리 삶의 일부로 아름답게 자리잡겠지요?

# 옛 이야기를 모아 미래를 빚다 학선리 마을박물관



글 이재철(학선리 마을박물관 관장), 2005년 귀농하여 <학선리 마을박물관>개관을 위해 활동했다.

## “오래된 길, 미래를 열다”

—학선리 마을박물관—

‘징한 가난 속에서 땅을 일구며 살아온  
시골 어르신들의 삶 속으로 길을 떠난다.  
아주 조심스럽게.  
손 때 묻은 살림살이를 만지고  
빛바랜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네들과 한 마음, 한 숨이 되어  
시골 마을의 미래로 나갈 길을 찾는다.’

(사)미래포럼(조형이사장)은 <초고령사회 디  
자인클럽>을 발족한 후, 지난 3월 초고령화  
가 진전된 농촌지역인 전북 진안과 충남 홍  
성의 마을답사를 다녀왔다. 그중 전북 진안  
의 학선리 마을박물관(봉곡마을소재)을 소개  
한다. (편집자주)



# 여성주의라는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



유한김벌리가 후원하는 NGO여성활동가 장학사업이 2016년에는 전북대학교에서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상반기 과정을 수료한 윤하람(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활동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편집자주)

## 윤하람 활동가님,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부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여성주의를 공부하면서 지금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장님의 강의를 듣게 되고 또 성매매 문제에 대해 처음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그 후 센터의 자원활동에 참여하면서 매달 성매매업소 여성들 만나는 아웃리치 서비스 활동에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은 현장에 직접 발을 디딘 것에 대한 낯설음과 그곳의 여성들이 지극히 누구보다 평범한 일상을 간절히 원하는 청춘들이라는 것에 대한 충격이 컸어요.

그 후 성매매라는 것 자체가 지구상에 존재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더 궁금해졌고 그 여성들이 왜 그곳에 있어야만 하는 가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장학사업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총 14강이 진행되는 동안 윤하람님이 경험했던 즐거웠던 일, 변화가 있었다면 들려주세요.

전북대학교 부설 여성연구소에서 보내온 리더십 교육에 대한 제안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육과정에 흥미로워했어요. 저희 단체는 사정상 3명이 참석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더 많은 활동가들이 참여하면 좋겠어요.

가장 즐거웠던 일은 활동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희 센터는 한 달에 한 번 활동가 전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와 활동을 일상에서 병행하는 문화가 익숙해요.(이건 자랑입니다ㅋㅋ) 그렇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여성주의 강좌를 무려 14강이나 공부

할 기회는 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경험과 함께 공부하는 것만큼 중요한 실천이 없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과정에 참여하면서 일상에 매몰되고 있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했어요. 그리고 여성운동과 활동가로서 해야 할 역할 등에 대한 고민과 열정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중에 여성주의 경제학은 여성주의 시각에서 경제학을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식인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보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사회의 평등과 정의는 민주적 원칙과 사람과 사람사이의 의사소통 그 자체일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간의 신뢰로만 들어지는 네트워크가 더욱 절실해집니다.

**NGO여성활동가 리더십교육이 처음으로 호남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반기에 한번 더 이 강좌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좋을까요?**

활동가로서 일터와 현장에서 느끼는 알 수 없는 갈증이 있거나 자신의 비전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 일상에서 새로운 자극이나 긍정적 변화를 만들고 싶은 분,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소통을 경험하고 페미니즘 공부가 하고 싶다면 이 좋은 기회를 꼭 가져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독려해주세요.

**활동가는 하루하루가 너무 바쁜 날들이지요. 직업으로서 힘든 점, 보람이 있다면?**

반성매매 운동을 하는 활동가로서 성매매에 대한 대중적 오해와 편견, 혐오와 낙인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제가 하는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보통의 일반적 반응이 성매매 그 여성들이 왜 피해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땐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지,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지 고뇌에 젖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성매매 방지법 위헌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지만, 그 결정문의 내용을 보면 여성들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착취 시스템과 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듯 하면서도 결론은 성도덕적 해이와 성생활의 문란함을 근거로 성매매 여성도 알선자와 구매자와 같이 함께 처벌한다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성매매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성들에 대한 폭력과 착취구조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개인의 책임으로 문제를 흐리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느낍니다. 성매매 문제의 핵심은 경제적, 관계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여성 아니라 그 여성들을 통해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남성중심 사회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해 조언을 한다면? 그리고 여성재단에게도**

이번 교육에서 조금은 아쉬웠던 것은 사회적 소수성과 페미니즘 안의 다양한 담론과 변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수자들의 권리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현실 여성운동의 다양한 실천과 운동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여성재단에게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W**

## 통번역으로 언어장벽 훌쩍, 이주민 전문가로 우뚝



링크이주민통번역협동조합은 창업전부터 의사소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노동자와 입국초기 결혼이주민에게 무료로 통번역을 지원해왔다.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모색하던 중 지난 2015년 〈다문화여성&저소득층 여성창업 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 사업에 선정되어 전문컨설팅을 통해 드디어 창업의 꿈을 현실로 이루게 되었다. (편집자주)



















### 한국여성재단 이숙진 신임 상임이사 취임



한국여성재단 이숙진 신임 상임이사가 5월 1일자로 취임했다. 이숙진 상임이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배분 위원 및 전문위원으로 활동할 만큼 여성재단과 인연이 깊다. 이 신임상임이사는 “고단한 여성의 삶을 바꾸는 희망의 리렌대가 되어 성평등사회를 향한 공익재단의 역할을 보다 확대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 신임이사는 인천발전연구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구기틀릭대 등에서 정책개발 및 학술연구교수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민간 모금재단 영역에서 여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총괄하게 된다.

### 다문화여성&저소득층여성 창업지원사업

#### My Future, My Business 출범식



글로벌 금융회사 J.P. Morgan과 한국여성재단이 함께한〈다문화여성&저소득층여성 창업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에 선정된 창업팀들의 출범식이 개최됐다. 총 다섯팀 중 4월 20일(수) 첫 번째로 출범식을 가진 ‘링크이주민통번역협동조합’은 통역, 번역, 상담 등의 전문성을 갖춘 이주여성 조합원들로 구성된 전국 최초 이주여성 주도형 직원협동조합으로 필리핀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등 10개 언어의 통번역이 진행 가능하다.

### 전북대학교-유한킴벌리 NGO여성활동가 리더십과정 수료식



유한킴벌리 후원, 〈전북대-유한킴벌리 NGO여성활동가 리더십과정〉 수료식이 지난 4월 21일(목) 개최되었다. 여성활동가 리더십과정은 2008년 서울, 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강원, 충청, 경상지역에서 진행되었으며, 2016년 올해 처음 호남지역에서 진행되었다. 여성주의적 통찰력을 기반으로 비판적 사유능력, 대안적 가치와 비전 제시 능력, 나눔과 소통의 관계 맺기 역량, 현장 여성주의 실천 역량을 개발하였으며, 호남권 여성활동가들의 리더십 강화 및 운동의 전문성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했다.

## 이씨엠디 임직원&다문화가정 자녀가 함께하는 Harmony Project 발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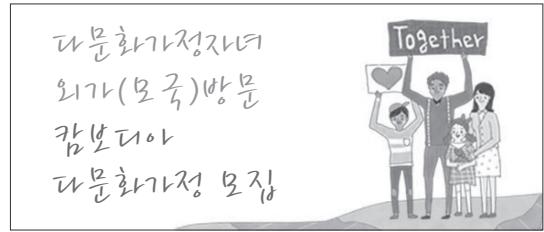
이씨엠디가 후원하고 한국여성재단이 주최하는 다문화가정 자녀 멘토링 프로그램 〈Harmony Project〉가 4월 23일(토) 발대식을 개최했다. 한국여성재단 이해경 이사장, 이씨엠디 김경순 경영지원실장을 비롯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멘티, 멘토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하모니프로젝트는 약 8개월 동안 다양한 문화활동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 100인 기부릴레이 기부자와 함께 한 <국립극단>의 문화나눔



100인 기부릴레이 기간동안 다채로운 문화나눔이 진행되었다. 올해 3~4월 사이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총 7편의 문화나눔을 진행했다. 3월에는 국악콘서트 ‘다담’과 연극 ‘빛의 제국’, 한국무용공연 ‘시간의 나이’를, 4월에는 국악콘서트 ‘다담’과 뮤지컬 ‘라트라비아타’, ‘루살카’ 공연, 연극 〈혈액〉, 순범수진양해 토크콘서트를 진행하여 약 300명의 여성재단 기부자와 많은 시민들이 문화나눔 혜택을 누렸다. 특히 올해 100인 기부릴레이 캠페인 기간이었기에 더욱 많은 기부자 분들이 함께 하는 기회가 되었다.

##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다문화가정 모집



하나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는 한–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방문 지원사업의 공모가 시작됐다. 본 사업은 한–캄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외가방문 및 엄마나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미래세대 주체로 성장할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엄마나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자아정체성 확립을 통해 보다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공모는 6월 3일(금)까지 진행되며 캄보디아 외가(모국)방문은 9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 김상현 네이버(주) 대표이사 강연 <네이버는 어떻게 일하는가>



(사)미래포럼(이사장 조형)은 지난 4월 26일 <30%클럽 CEO 특강>을 개최하였다. 김상현 네이버(주) 대표이사는 <네이버는 어떻게 일하는가>라는 주제로 기업의 혁신가치와 문화를 소개하였다. 김 대표는 여성대표성 증진은 CEO의 의지가 중요하며 네이버는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한 경쟁문화를 구축하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30%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네이버가 여성임원 30%를 달성하는 우리나라 첫 기업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30%클럽 선언에 동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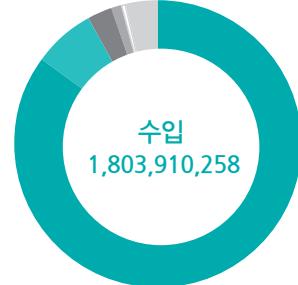
(미래포럼 [www.meerae.org](http://www.meerae.org))





## 수입 Income

항목	내용	금액(원)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단체 등 국내외 지정기탁 사업지원 및 물품기부 등	1,535,415,917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기부릴레이 기부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만만클럽(폭력없는세상, 안전한 사회 만들기) 일터(가게)나눔 동전나눔 해피빈 콩기부 싸이월드 기부 카드포인트 기부 등	126,856,651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49,926,590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18,000,000
운영후원금	개인, 기관의 한국여성재단 협찬 등	11,170,000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캐쉬SOS상환기금 등	62,541,100
<b>총수입</b>		<b>1,803,910,258</b>



## 지출 Expense

구분	항목	내용	금액(원)
	모금사업비	모금행사, 기부자관리 등	19,255,534
고유 목적 사업비	배분사업비	1. 소외여성 empowerment 사업 · 여성가정 및 활동가,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 (CJ모금) ·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 다문화여성 창업지원사업 (J.P. Morgan) · 봄빛장학금 (봄빛기금)	414,842,821
		2. 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 여성NGO장학사업 (유한킴벌리) ·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캐쉬SOS상환 기금) ·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 긴호흡 (교보생명)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홍보영상물 제작 등	19,202,339
운영비	연구사업비	연구조사비 등	243,000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153,158,454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10,839,710
<b>총지출</b>		<b>617,541,858</b>	



1999년 사회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과 전국 124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출범한 한국여성재단은 나눔문화 확산과 여성을 지원하는 비영리민간공익재단으로 2015년 삼일투명경영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015년 삼일투명경영대상 수상



한국여성재단은 성평등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전국 여성단체들을 지원합니다. 성평등사회만들기에 기부하세요.

농협 369-17-005283 국민 079-01-0405-971 예금주 : 한국여성재단

# 창업을 꿈꾸는 다문화여성들과 함께 합니다



J.P. Morgan은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다문화여성 · 저소득층여성 창업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를 통해  
소외계층 여성들이 경제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J.P.Morgan**

J.P. Morgan은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하고자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습니다. 한국에서의 활동으로는 비영리 단체들과 협력하여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 창업을 꿈꾸는 틸북 주민과 다문화가정 여성들, 사회적기업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예비창업자들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습니다.